

News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추가로 인수 가능해진다

조선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 금융지주 밑으로 저축은행이 들어가는 것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저축은행 중에서도 금융지주에 소속된 저축은행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도 금융지주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금융지주, 배당 여력 충분한데...금융당국 자체 압박에 '딜레마'

뉴스1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압박.... 금융지주들은 금융당국이 민간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불멘소리....
"매우 조심스럽지만, 사실 번 만큼 주주들에게 돌려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가계대출 지난달 13조 역대 최대 증가

동아일보

올해 11월 중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13조6000억 원 늘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7조4000억 원 급증....
'막차 수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 금융감독원은 4일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출 자체를 촉구...

JB금융, 심상찮은 BIS비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급증

머니S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떨어진 곳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뿐... JB금융그룹의 BIS비율 급락은 자기자본에 비해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했기 때문....
"기업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등 3분기 대출 채권이 전분기보다 4.1% 증가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BIS비율이 하락했다"

병원 다닌 만큼 더 내고 깎아주는 실손보험 나온다

동아일보

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의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가능...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면 이듬해 내야 할 보험료를 높이고 덜 이용하면 깎아주는 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손실을 막아...

증권사 빠진 부동산 PF 보험사가 뛰쳤다

매일일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대폭 증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PF 부실화를 우려해 규제에 나서자,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어...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대체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PF의 경우 당장 부실화 위험에 노출돼 있진 않다"

올해 은행·증권사 민원 폭증... 사모펀드 사태 영향

조선일보

올해 1~3분기 금융민원이 전반적으로 증가... 특히 사모펀드의 부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분쟁 민원이 몰려...
"증권회사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 대상 민원과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중소형 증권사, 틈새시장 스팩 공략

뉴스토마토

IPO 시장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직상장보다 스팩 합병에 집중... 대형사들이 힘쓸고 있는 직상장 주관 대신 스팩상장으로 IPO 틈새시장을 공략중....
"스팩 상장은 한때 시장 수요가 낮아 상장폐지 되는 기업도 있었으나 IPO가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했던 지난해 스팩상장이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